

吳世才 小論

尹 榮 玉

<目 次>	
1. 序 言	5. 性 稟
2. 家 系	6. 詩
3. 學 問	7. 結 言
4. 交 遊	

1. 序 言

高麗의 漢詩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李奎報를 研究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李奎報를 研究하다 보면 漢陽 吳世才를 만나게 될 것이다. 李奎報의 나이 10代 末 未冠時에 35歲나 年上인 거의 老年期에 접어든 吳世才가 李奎報를 한번 만나보고는 忘年友를 禮탁하고 항상 손을 잡고 相從했다 하니 李奎報에 미친 吳世才의 影響이 얼마나 컸을까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李奎報를 研究하기에 앞서 漢陽 吳世才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를 研究하기 위한 資料는 극히 드물고 그가 남긴 作品도 거의 전하지 않는다. 李仁老들과 七賢의 交契를 맺고 詩酒로 自娛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作品은 많았으나 현재까지 전해지는 그의 作品이 2首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資料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략하게나마 주어진 資料를 통하여 吳世才의 人間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전해 오는 그의 2首의 詩를 理解해 보고자 이 小論을 전개해 본다.

2. 家 系

吳世才의 字는 德全이고 全羅道 高靈縣人이다. 祖父가 翰林學士를 지낸

吳學麟이고, 그의 兄弟 三人中에서 제일 끝이었다. 이 집안은 대대로 儒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그의 두 兄이 世功과 世文인데, 이들은 당대의 名儒들로 文章에 뛰어났었다. 世文은 三百韻의 長詩를 쓸 만큼 能文한 자로 《歷代賦》를 짓기도 했다. 그런데 이 三兄弟中에서도 世才가 실로 白眉之良으로 그 두 兄마저도 스스로 世才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¹⁾

學士 李知深이가 世才의 재주를 사랑하여 그 딸을 주어 사위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科文의 規準에 맞지 않게 自由奔放하여 여러번 科擧에 落榜하였다가 明宗時에 合格은 하였으나 官職을 가져보지는 못했다. 李仁老가 세 번이나 글을 올려 科擧에 천거하였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마침내 東都에 내려가 구차히 지내다가 一生을 마치고 말았다.²⁾

3. 學 問

吳世才는 세상에서 名儒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며, 또 名儒로 알려진 그의 두 兄 世功이나 世文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는 仁宗祖에 登第하여 才名이 세상에 알려져 長沙 長興 南原 三郡의 副使와 南京의 副留守를 지내면서 惠政을 베푼 바 있는 大興郡人 韓文俊의 門人이었다. 그래서 吳世才는 文俊의 惠政함을 기려 “남쪽 三郡의 아름다운 풍속을 소생시키고 동쪽 一州의 백성을 어루만져 위로했다”하는 詩를 지어 바치기도 했다.³⁾

『高麗史』의 吳世才傳에서는 “世才는 어려서 힘써 배워 몸소 六經을 베껴서 읽었으며, 날로 周易을 외었다. 明宗時에 登第하였으나 性稟이 疎曠少檢하여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였다”⁴⁾고 기록하고 있다.

李奎報는 《吳先生德全哀詞並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學士 李知深이 딸을 주어 사위로 삼았는데 간혹 의기를 띠고 남에게 굽혀려 하지 않고 교만했으나 李公은 그의 재주를 사랑하여 꾸짖지 않았다. 더욱 힘들여

1) 高麗史 列傳 吳世才

2) 李奎報의 吳先生德全哀詞並序

3) 韓文俊 大興郡人 父惟忠 勤儉正直 見重於時 官至平章事 文俊性雅正 少能屬文 有逸氣 惟忠常謂人曰 興吾門者必此兒也 仁宗朝登第 才名聞於世 時方重外寄 歷長沙 長興 南原 三郡 副使 南京 副留守 皆有惠政 門人吳世才嘗投詩曰 南蘇三郡俗 東撫一州民(高麗史 列傳 韓文俊)

4) 世才少力學 手寫六經以讀 口誦周易 明宗時登第 性疎曠少檢 不容於世(高麗史 列傳 吳世才)

六經을 耽讀하고, 나머지 經들은 비록 외우고자 노력하지는 않았으나 책을 보지 않고도 의문이 많더라. 아마 입에 익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통하여 새어나왔던 것이다. 일찌기 몸소 六經을 배끼고는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백번 읽기보다 한번 배껴 마음에 새겨 둘이 낫다고 말했다.⁵⁾ 그래서 吳世才의 文名은 婦女나 兒童들까지도 모르는 자가 없었다고 했다.⁶⁾

4. 交 游

吳世才는 當世의 名儒 李仁老 林椿 趙通 皇甫抗 咸淳 李湛之들과 忘年友를 맺고 詩酒로써 서로 즐겼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들을 江左七賢에 비했다.⁷⁾

吳世才가 詩酒로써 游交한 이들에 대해 略述하던 다음과 같다.

〔李仁老〕

1152년(毅宗 6)~1220년(高宗 7). 高麗 明宗時의 學者. 字는 眉叟, 初名은 得玉, 號는 雙明齋. 어려서 총명하여 文章과 글씨에 능했다. 鄭仲夫亂에 머리를 잡고 피난한 뒤 다시 還俗하였고, 1180년(明宗 10)에 魁科에 及第, 直史館에 있으면서 당대의 학자들인 吳世才, 林椿, 趙通, 皇甫抗, 咸淳 李湛之와 忘年友가 되어 詩酒를 즐겼다. 神宗때 禮部員外郎, 高宗初에 秘書監 右諫議大夫가 되었다. 성미가 급하였으므로 크게 쓰이지 못했다.

〔林椿〕

高麗 仁宗時의 文人. 字는 善之, 西河人. 여러 번 과거에 실패. 1170년(毅宗 24) 鄭仲夫亂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며, 李仁老, 吳世才 등과 함께 江左七賢의 한 사람으로 詩酒로 세월로 보냈다. 漢文 唐詩에 뛰어났다.

〔趙通〕

高麗 神宗朝의 學者. 字는 亦樂, 玉果縣人. 明宗이 그의 學行을 들그 차

5) 學士李知深 以女妻之 間或負氣偃蹇 李公愛其才 不改醫焉 尤精力耽六經 餘經雖不期於誦 其背文而誦者亦幾乎 半蓋熟於口而不覺出物故耳 嘗手寫六經謂人曰 百讀不如一寫之存心(吳先生德全哀詞並序)

6) 李子問吳德全曰 三韓自古以文鳴於世者多矣 鮮有牛童走卒之及知其名者 獨先生之名 雖至婦女兒童無有不知者何哉(李奎報忌名說)

7) 李仁老……與當世名儒吳世才 林椿 趙通 皇甫抗 咸淳 李湛之結爲忘年友 以詩酒相娛 世比江左七賢(高麗史 列傳 李仁老)

주 召命이 있었으며, 及第後 累進하여 正言에 이르렀으며, 神宗이 即位하자 考功員外郎으로 金에 건너가 억류되었다가 이듬해 돌아와 太子文學을 거쳐 知西北面留守事가 되어 信義로써 사람을 대하여 신망을 얻었다. 少府少監으로 진주에 나가 백성을 안무하고 左諫議大夫, 國子監, 大司成 등을 역임하고 翰林學士에 이르러 사퇴하였다. 經史와 百家語에 通曉하였으며, 前平章事 崔薰 前秘書省 白光臣과 더불어 耆老會를 조직하고 逍遙自適하니 세상에 地上神仙이라 일컬었다.

〔皇甫抗〕

明宗 때의 名儒, 李仁老 吳世才들과 더불어 忘年友가 되어 詩酒로 自娛하였다.

〔咸淳〕

明宗 때의 文章家. 恒陽人. 工部尙書 有一의 아들, 과거에 급제했으며, 文章이 탁월하고 節行이 있어 세상에 이름이 높았다.

〔李湛之〕

明宗朝의 學者.

李奎報는 이들에 대해, 晋나라의 七賢을 思慕해서 매일같이 서로 모여 술을 마시고 詩를 지어 旁若無人해서 세상사람들이 그들을 譏弄했다고 말했다.⁸⁾

그러나 吳世才는 李奎報에게 “내 재주는 비록 嵇康에 미치지 못하나 자네는 阮籍됨이 可할 것이네⁹⁾”라고 말했다. 吳世才가 자기를 비유한 嵇康은 바로 晋의 七賢의 中心人物이었으니 嵇康을 思慕한 것임에는 틀림 없다. 『晉書』의 《嵇康傳》에는 대략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嵇康 字叔夜 譙國鉅人也 其先姓奚 會稽上虞人 以避怨徙焉 鉅有嵇山 家于其側 因而命氏 兄喜有當世才 歷太僕宗正

康早孤 有奇才 遠邁不群 身長七尺八寸 美詞氣 有風儀 而土本形骸 不自藻飾 人以爲龍章鳳姿 天質自然 恬靜寡欲 含垢匿瑕 寬簡有大量 學不師受 博覽無不該通 長好老莊 與魏宗室婚 拜中散大夫 常修養生服食之事 彈琴詠詩 自足於懷 以爲神仙稟之自然 非積學所得 至於導養得理……

8) 先輩有以文章名世者七人 自以爲一時豪俊 遂相爲七賢 蓋慕晉之七賢也 每相會飲酒賦詩 旁若無人 世多譏之(李奎報 白雲小說)

9) 吾才雖不及嵇康 以子爲阮籍可矣(吳先生德全哀詞並序)

所與神交者 惟陳留阮籍 河內山濤 豫其流者 河內向秀 沛國劉伶 籍兄子咸 琅邪王戎 遂爲竹林之游 世所謂竹林七賢也

戎自言與康居山陽二十年 未常見其喜愠之色

康常採藥游山澤 會其得意 忽焉忘反 時有樵蘇者遇之 咸謂爲神

性絕巧而好鍛

康善談理 又能屬文 其高情遠趣 率然玄遠……

世俗이 얽매이지 않는 理想的인 人間의 추구를 마음속으로서 나타내 바랐던 것일 것이다. 그래서 吳世才는 五十三歲의 老年으로 겨우 18살 난 李奎報를 찾아가 열흘 동안이나 그 집에 머물면서 그와 더불어 아주 다정하게 마음을 談論하고, 李奎報가 어른으로 모시고자 했으나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忘年友로 허락하고는, “古人이 論交함에는 다만 論志가 어떠한가에 있었지 나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내 재주 비록 嵇康에 미치지 못하나 자네는 阮籍됨이 못할새 라고 말했다.”¹⁰⁾

그리하여 35歲나 年下인 十代의 少年을 忘年友로 허락하고 自稱 七賢의 모임에 손을 잡고 참석해서, 吳世才가 東遊不返해서 빈 자리를 李奎報가 채우도록 말하게 되었다.¹¹⁾ 吳世才의 交游中 가장 格別한 관계를 맺었던 자가 李奎報였다.

李奎報는 吳世才가 東遊不返하자 《吳德全東遊不來以詩寄之》, 《憶吳德全》《重憶吳德全》이란 詩를 지었을 뿐 아니라, 吳世才가 他界하자 《吳先生德全哀詞》를 지어 그를 吊喪하고, 《忌名說》을 써서 吳世才를 辨護하기도 했다.

5. 性 稟

吳先生世才는 세상에서 일컫는 바 名儒이지마는 평생동안 사람을 인정해서 許한 사람이 적다고 한다.¹²⁾ 그는 性格이 疎簡少檢하고 도 간혹 負氣 愾戾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35歲나 年下인 李奎報를 忘年友로 許하고 그를 評하여 “非常人으로 만드시 크게 될 것이라” 한 것을 보면

10) 昔公之未東也 始訪予於城西之莊 留浹辰論懷欵密 予年方十八 猶未冠 公已五十三矣 予欲以丈人行事之 公不肯焉 許以忘年曰古人之論交 但論志之何如耳 不必以齒 吾才雖不及嵇康 以子爲阮籍可矣(吳先生德全哀詞並序)

11) 時余年方十九 吳德全許爲忘年友 每携詣其會 其後德全遊東郡余復詣其會 李清卿目余曰 子之德全東遊不返 子可補也(白雲小說)

12) 有吳先生世才者 世所謂名儒 平生小許可人(李相國集序)

知鑑이 있어서 아무나 가까이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¹³⁾

『東國輿地勝覽』高敞의 人物條에서는 “그는 天才가 俊逸하여 繩墨에 맞지 않아 春官에 見屈하여 과거에 及第하지 못했고 明宗時에 비로소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性稟이 疎簡하여 세상에 용납되지 못했다¹⁴⁾”고 하였다.

그러나 李奎報는 《忌名說》을 지어 다음과 같이 이를 辨明하였다.

李子가 吳德全에게 물기를 “三韓에는 예로부터 文章으로 세상에 알려진 자가 많지라는 牛童走卒까지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드문데 오직 先生의 이름은 婦女나 兒童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자가 없으니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니, 先生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내 일찌기 老書生으로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四方으로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으니 나를 아는 자가 많고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떨어졌으니 사람들이 다 지목하여 ‘올해도 아무개는 급제하지 못했구나’ 함으로 내 이름이 사람들의耳目에 익어서 그런 것이지 반드시 내 재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또 길수는 없으면서 험된 이름만 누리고 있으니 마치 功이 없으면서 千鍾祿을 먹는 것 같다. 내 이로 窮困함이 이와 같으니 평생 내가 꺼리는 것이 이름이다”하였다. 그가 이처럼 貶損한데 어떤 사람은 公을 恃才傲物이라 하니 이는 너무나 先生을 모르는 자이다.¹⁵⁾

李奎報는 《吳先生德全哀詞並序》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겉에서는 소탈하고 대범하여 겉속이 격었으나 말년에 등과하고부터는 비로소 기를 꺾고 노력을 다하니 순순한 예법의 군자였다. 그러나 역시 세상에 용납되지 않고 앞길이 막혀 헤매던 나머지 趙·柳 두 분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 사연이 애절하고도 비장하고, 억양의 변화가 또한 다취가 있어 작으로 옛사람의 기풍

13) 自是嘗與遊詩酒間 每於名流廣會中 以得予爲誇 或譏以爲先生老大師儒也 安用此孺子爲友而驕其心耶 公輒曰非子輩所知也 此公之所以贊予於頭角未露時也(吳先生德全哀詞並序)

方未冠時 有吳先生世才者 世所謂名儒 平生小許可人 一見寄之 許以忘年 人或非之曰 先生長於李三十餘年矣 何嫌此頭孺子使之驕耶 先生曰 非爾輩所知也 此子非常人 後必遠到矣(李相國集序)

14) 然天才俊逸 不合繩墨 見屈於春官 明宗時始得第 性疎簡不容於世(동국여지승람)

15) 李子問吳德全曰 三韓自古以文鳴於世者多矣 鮮有牛童走卒之及知其名者 獨先生之名 雖至婦女兒童無有不知者何哉 先生笑曰吾嘗作老書生糊口四方無所不至故 人多知者而 連學春官不捷則 人皆指以今年某又不第矣 以此熟人之耳目耳 非必以才也 且無實而享虛名猶無功而食千鍾祿 吾以是窮困若此 平生所忌者名也 其貶損如此 或以公爲恃才傲物 此甚不知先生者也(忌名說)

이 있어서 읽는 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추천을 받지 못했으니 너무하다. 세상의 절박하고 씁쓸이 이같은이여!¹⁶⁾

崔滋의 『補閑集』에 있는 弁菴居士淳之가 吳世才에게 준 詩의 狹註에 보면 “金無迹嘗謂子言 世之議評吳公以爲使酒豪橫者皆非也 公乃深沈閑雅挫銳備光不欲露一毫芒耳”라 하여 世人의 評을 間接的으로 부정하였다.

6. 詩

崔滋는 『補閑集』에서 “學士家世業儒 其孫世功世文世才三昆 季皆文章大手 弟世才最優 世文次之 平生詩藁山積皆散逸 不傳于世 悲夫”라 하였으니, 그 많은 吳世才의 詩文을 다 어디 가고 지금은 단지 二首의 詩篇만을 접할 수 있을 따름이다.

『東國輿地勝覽』高敞 人物條에서는 吳世才의 詩文은 李翰林體를 얻었다고 하였으나¹⁷⁾, 그와 相從했던 李奎報는 韓·杜의 體를 얻었다고 하였다.¹⁸⁾

吳世才의 文은 韓愈를 본받았던 모양이다. 羅根澤은 『中國文學批評史』에서

韓柳文의 優劣不易一言判斷 歐陽修崇韓抑柳是基於韓愈辟佛而柳宗元作和尚碑文

이라고 하였다. 韓愈는 辟佛했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吳世才도 당시의 國敎와 같은 佛敎를 싫어했던 것이고, 佛敎를 싫어했다는 것은 당시의 지배적인 理念에 和合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李奎報의 말을 더 믿는다면 吳世才는 詩로서는 李白이 아닌 杜甫의 詩를 더욱 본받은 것 같다. 이것은 당대의 사람들이 東坡의 詩文을 崇尚한 것과는 區別되는 것이다. 그런데 李白과 杜甫에 대해 羅根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明人李榕樞說李全乎天才 杜全乎學力 清人趙翼破不謂然(甌北詩話二) 實則如李白自己所說「橫經枕籍 制作不倦」(上安州裴長史書) 何嘗沒有學力? 杜甫自己說「七

16) 少疎紹少檢 晚節登科第 始折節刻勵 拘拘然禮法君子也 尚不容於世 蹇蹶不振 嘗以書于趙柳兩公 其辭哀切悲壯抑揚婉轉 真有古人風 讀之不覺涕下 然而猶不得被薦 則甚矣 世之迫隘之如此也

17) 少力學 手寫六經而誦之 爲詩文得李翰林體(東國輿地勝覽)

18) 爲詩文得韓杜體(吳先生德全哀詞並序)

齡思印壯 開口吟鳳凰(壯遊) 何嘗沒有天才? 天才學力不是二人的區別 二人的區別在 李白採取積極浪漫主義的方向方法 杜甫採取現實主義的方向方法 作風不同 各極其妙 奮論高下 殊屬不易 後人的優劣說 無價值的 不談 有價值的也不在抑揚李杜 而在提示積極浪漫主義的或現實主義的風俗 元稹抑李揚杜 說杜詩的長處在「窮真終始 採以聲韻 風調清新 屬對律切」正是提示了現實主義的風格 歐陽修抑杜崇李 說李詩的長處在「天才自放 落筆雲烟 千奇萬險 不可追攀」正是提示了積極浪漫主義的風格

위의 말을 고려할 때, 吳世才는 몸소 六經을 배겨 의술 정도로 學力에 힘썼다는 것과 당시의 理念이 아닌 現實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 詩의 風格이 杜甫에 가까왔을지도 모른다.

奎奎報는 《吳德全載巖詩跋尾》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吳德全은 시를 힘차고 준수하게 지었다. 그 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이 적 많다. 그러나 強韻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듯한 시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北山에 이르러 戟巖을 詩題로하여 시를 지으려고 사람에게 韻字를 내게 하자. 그 사람은 고의로 험한 韻을 불러 주었다. 先生이 시를 짓기를,

北嶺巖巖石 邦人號戟巖
 迥撞乘鶴晉 高刺上天威
 揅柄電爲火 洗箒靄是鹽
 何嘗作兵器 敗楚亦亡凡

柄하였다.

그 뒤에 蒙古使臣이 왔는데, 그는 시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이 詩를 보고 재삼 찬탄하고는 “이 사람이 살아 있는가? 지금 무슨 벼슬을 하고 있는가, 혹은 만나볼 수 있었는가?”하고 물었는데, 우리 나라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대답한 자가 없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지금 制誥學士의 직임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하였다. 그들은 이처럼 權變에 어두었으니 한탄스럽다.¹⁹⁾

吳德全의 詩는 遼邁勁俊하기 때문에 人口에 膾炙되었으나 強韻을 썼으면

19) 吳德全爲詩遼邁勁俊 其詩之膾炙人口者不爲不多 然末見能押強韻 儼若天成者 及於北山欲題戟巖 則使人占韻 其人故以陰韻占之 先生題曰……其後有北朝使 能詩人也 聞此詩再三歎美 問是人在否 今作何官 儻可見之耶 我國人茫然無以對 予聞之曰 何不道今方爲制誥學士之任耶 其味權如此可歎哉云(李相國集 21)

서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은 自然스런 詩를 보지 못했다 한다. 詩의 氣格이 굳세기는 하나 強韻을 驅使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強韻은 곧 險韻을 말하는 것인데, 위의 戟巖詩跋을 보면 吳世才가 強韻으로 詩를 짓지 못한 것은 아닌 모양이다. 強韻을 使用하기를 꺼렸을 뿐이다. 強韻 곧 險韻으로 詩를 짓는다는 것은 自然스럽지 못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戟巖詩는 險韻으로 쓴 詩이지만 詩에 能한 北朝使臣이 이 詩를 듣고는 再三 歎美했다고 하니 吳世才가 強韻을 쓸 수 있는 才能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強韻쓰기를 꺼려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李奎報는 《吳先生德全哀詞》에서 “李杜爲敵 一接殲兮”라 하였다.

그는 詩를 아주 自然스럽게 쓴 것 같다. 吳世才가 그의 스승에게 門人으로서 보낸 詩를 보면, “南蘇三郡俗 東撫一州民²⁰⁾”이라고 아주 自然스럽게 表現했다.

위의 《戟巖》을 살펴보도록 한다.

北嶺巖巖石
邦人號戟巖。
迥撞乘鶴晉
高刺上天威。
揉柄電爲火
洗鋒霜是鹽。
何當作兵器
敗楚亦亡凡。·(·仄聲字。韻)

『東文選』에서는 首聯의 前句를 “北嶺石巖巖”이라 하여 <石>의 자리가 바뀌어 있어 <巖>을 押韻한 것처럼 해 두었으나 李奎報의 《吳德全戟巖詩跋尾》中の 것을 그 原典으로 잡고 살펴 본다.²¹⁾

이 詩를 paraphrase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北嶺의 높고 험한 돌들

20) 高麗史 列傳 韓文俊, 作品 전부가 전하지 않음.

21) 崔滋의 『補閑集』 卷上에서도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吳世才賦北岳戟巖云 北嶺巖巖石 旁人號戟巖迥撞乘鶴晉 高刺上天威 揉柄電爲火 洗鋒霜是鹽 何當作兵器 敗楚亦亡凡 有宋人見此詩 歎服問曰 此人在乎至何官 我宋有如此作詩者 則必爵之 此詩非閑中題詠 殆被人占強韻令賦耳……”

나라 사람들이 왕바위라 부르네.
 멀리 鶴탄 뿜을 치고,
 높이 하늘 오르는 威을 찌르는 듯.
 자루 곧추 세우면 번개가 불이 되고,
 창날을 씻으면 서리가 소금이네.
 어찌하여 兵器 만들어
 楚나라 敗하고 凡나라 亡게 하지 않는고.

北嶽은 開城에 있고 그 꼭대기에 있는 바위들을 그곳 사람들은 戟巖이라 부르고 있다. 이 命名은 比喻에 바탕을 두고 있다. 戟은 갈래진 槍을 말한다.

前句에서 “巖巖石”이라 한 것은 戟巖의 形象을 個別的으로 描寫한 것이다 巖과 巖을 重疊한 것과 <石>이라 한 것이 그 때문이고 이것이 結合되어 戟巖이 된 것이다. 이것은 詩人의 表現이나 戟巖은 이미 命名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詩想의 自然스런 發動이라 하겠다. <石>과 <巖>은 韻의 面에서는 對立的이다. 前者는 仄韻이고 後者는 平韻이기 때문이다. 딱딱한 것을 부드러운 것으로 發展시켰다.

韻聯에서는 그것을 더욱 發展시켜 “멀리 鶴탄 王子뿜을 치고, 높이 하늘 오르는 巫威을 찌르는 듯”이라 하였다.

“멀리(迺)는 寥遠함을 뜻하는 말로 副詞語이다. 이것은 仄韻으로 강조되어 있다. 王子뿜은 神仙이 되었다고 하는데, 鶴을 타고 하늘을 지금도 날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迺)은 垂直的方向만 提示해 주는 것이 아니고 空間的인 內容을 말해 준다. “친다(撞)”와 結合될 때 더욱 그러하다. 높고 험한 戟巖이 停止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表現이다. 後句의 “높히(高)”는 “上”과 結合되어 垂直的인 의미를 나타낸다. “찌르다(刺)”는 것은 그것만으로 方向을 定할 수 없으나 그의 앞뒤의 <高>와 <上>에 의해서 方向지워지는 것이다. 이것도 過去나 停止된 現在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現在의 狀況을 나타낸다. 巖巖하다는 抽象的인 表現을 이 韻聯은 具體化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過去의 神仙 神巫라 할 수 있는 王子뿜과 巫威에 聯關지어지므로 해서 과거의 자취가 現在에도 異界에 存在하고 있는 것처럼 表現하고 이 戟巖을 통해 그 곳에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韻聯은 단순히 戟巖의 形象만 나타낸 것이 아니고 詩人의 憧憬이 그 속에 담겨있다고 하겠다.

頸聯에서는 詩想이 바뀐다. 詩想이 바뀔과 함께 變韻(鹽韻)으로 脚韻되어 있다. 그리고 文章表現도 다르다. 各句에 述語가 두 개로 나타나 있다. 各句는 複文으로 構成되어 있다. 前句의 〈揉〉와 〈爲〉 後句의 〈洗〉와 〈是〉가 그것이다. 그래서 各句의 前後 文章의 關係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頸聯은 前後句가 完璧한 對句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押韻마저 前後句에서 對를 이루고 있다.

揉柄 電爲火
洗鋒 霜是鹽

“揉柄”은 戟의 자루를 “調順, 直, 曲直”한다는 뜻이니, 곧 창을 運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창을 運用한다는 것은 창을 휘둘러 한다는 뜻이다. 창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戰爭時이다. 그리고 “洗鋒”한다는 것은 창을 날을 씻는다는 것이니 이것은 戰爭의 終熄을 말한다. 그렇게 對를 맞추어 볼 때 이들 各句의 前後의 文章은 因果의 關係로 해석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揉柄하면 電爲火라 볼 수 있다. 창을 휘둘러 잡고 運用하면 번개가 불이 된다는 말이다. 번개는 흔히 神의 武器에 비유된다. “電爲火”는 비유이다. 이 비유는 그 類似性에 의하여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비유이다. 그러므로 “火”는 戰爭의 狀態를 나타낸다. 번개 곧 神의 武器가 戰火가 된다는 것은 勝利를 暗示·含蓄하는 것이다. 그와 對가 되는 “霜是鹽”은 앞의 “洗鋒”과의 因果關係에서 보면 鋒의 形象을 비유하고 있는 “霜”이 곧 “鹽”이라는 또 하나의 비유를 성립시켜 주고 있다. 霜과 鹽은 그 色彩나 녹는다는 性質으로 同質性이 그 밑바침이 된다. 霜은 두려운 存在, 避해야 할 存在이지만 鹽이란 “食之將”으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存在이다.

이 頸聯 곧 轉聯에서는 戟巖을 하나의 道具로 認識하여 우리 人間生活와 相關하여 그 意味를 부여해 주고 있다. 이 頸聯의 前句에서는 平聲字를 다 述語로 使用하고 있으나 後句에서는 다 仄聲字를 術語로 使用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後句의 述語를 強調하고 있다고 보겠다. “洗鋒”에서 “씻는다”는 意味에 強點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原因이 될 때에는 霜과 鹽의 同質性을 結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戟의 平和의 面을 強調한다고 할 수 있다.

尾聯에서는 다시 道具로서의 戟巖과 그 戟의 機能을 통한 平和의 爭取를

내포하고 있다. 戟은 그 자체가 兵器이다. 그 兵器으로써 楚를 敗케 하고 凡을 亡케 하지 않는가? 楚와 凡是 이미 過去에 滅亡한 나라들 이다. 楚는 戰國時代 蠻夷로 구성된 强暴한 나라였고 凡是 周의 公子의 封國이었다. 이들은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나라일 것이다.

결국 이 詩는 戟縱이란 自然形象에 인간의 삶과의 관계에서 그 意味를 보여주고, 詩人의 平和에의 指向을 그 主題로 表出한 作品이다. 詩에 能한 北朝使臣이 再三 歎美한 것은 그 理由가 이 때문일 것이다. 그 詩想의 發展이 아주 自然스럽다.

다음은 《病日》이란 作品을 살펴보도록 한다.

老與病相隨
窮年一布衣。
玄花利掩映
紫石少光輝。
怯照燈前字
殘承雪後墀。
待着金榜罷
閉目坐忘機。

『東文選』에 있는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 詩는 吳世才 晩年の 作으로 그의 一生을 돌아보고 諦念하는 心境에서 쓴 作品인 것 같다. 이 作品을 Paraphrase 하면 다음과 같다.

늙음과 병이 함께해서
平生토록 한 布衣.
가을꽃들은 가려서 술김이 달으나
내 눈동자 광채 적구나.
등불알 글자 비치기 겁나고,
눈은 뒤 햇빛 받기 부끄럽구나.
金榜이 파하는 것이나 기다려 보고
눈감고 앉아 세상일 잊으리.

首聯에서는 自己의 一生을 그대로 表現했다. 늙음과 병은 이웃한 것이다. 이것은 生의 終末에로의 移行을 의미한다. 그래서 後句에서 “窮年”이라 했

다. 窮年은 一生涯라는 뜻이긴 하지만 “布衣”와 연결될 때 “窮”의 意味가 浮上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詩人自身の 一代記의 要約된 표현이다. 늙고 병 들은 어찌 할 수 없으나, 布衣를 면하기 위하여 學問도 하였고, 科擧도 보았으며, 벼슬을 얻기 위하여 글을 올려 干請도 해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끝내 벼슬 한 자리 얻지 못하고 外祖의 故鄉인 東都로 떠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詩人의 處地를 생각해 한다.

頷聯은 外界와 自身을 비교해서 늙고 병들어 無氣力한 自身을 나타내었다. “玄花”는 꽃이다. “玄”을 時間과 결부시켜 “玄月”이라 한다면, “玄月”은 九月이니 九月의 꽃이 되겠다. 九月의 꽃이란 稠落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아직도 습었다 비쳤다 하면서 自身을 나타내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동자(紫石)는 光輝가 적다. 紫石은 본래 銳利한 눈의 光彩를 形容한 말이다. 원래는 빛나는 눈의 광채로 사물을 銳利하게 透視할 수 있었으나 “老與病”으로 이제는 그 光彩마저 잃어 外界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없는 處地임을 나타낸다.

頸聯에서 “등불앞에 글자 비취 고기 겁나고 눈은 뒤에 햇빛 받기 부끄럽다”고 한 것은 頷聯의 詩想을 發展시킨 것이다. “겁나고” 이유는 눈이 어둡다는 데 있을 수도 있으나 “字”의 舍意가 다만 文字라는 뜻만이 아니고 글이라 볼 때, 그 글 속에는 歷代 聖賢君子들의 말씀과 행동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는 “手寫六經以存心”하였다고 했으니 聖賢君子들의 生活을 본받고자 했을 것이며, 그 때는 눈에서 銳利한 光輝를 發했을 것이다. 그러나 一生은 이미 窮年에 들고 이론 바 없이 褪色한 一生이라 聖賢君子들의 행동과 말씀을 읽기가 겁이 나는 것이다. 눈은 뒤의 햇빛이란 더욱 빛나는 것인데 自然의 光彩는 젊음과 늙음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人生 한번 늙은 뒤에 이론 바 없어 광채 있을 수 없으니 이 또한 부끄러움이 아니겠는가? 이 頸聯은 歷史와 自然 앞에 선 詩人自身の 褪色되기도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것이다.

尾聯에서는, 그래도 生애의 執念을 버릴 수 없으나 이를 수 없는 것일 때는 諦念하고 마는 人間의 一面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속에는 隱然 中에 葛藤을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것 같다. “金勝이 파하기를 기다려 보고 눈감고 앉아 세상일 잊으리” 金勝은 科擧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榜이다. 급방이 파하기를 왜 기다려 보는가? 金勝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欲望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吳世才는 스스로 “連擧春官不捷則 人皆

指以爲今年某又不第矣 以此熟人之耳目耳”라 했다. 수없이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그때마다 落榜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도 “기다려 본다”는 미련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한번 겨우 及第는 하였으나 벼슬 자리는 얻을 수 없었다. 老書生으로 糊口四方하다가 그마저 어려워 終乃에는 外祖의 故鄉인 東都로까지 갔으나 거기서도 그에게 힘이 되어 도와 줄 자 없어 마침내 窮困으로 一生을 마쳤으니²²⁾ “눈감고 앉아 세상일 잊으리니”는 어쩔 수 없는 諦念이었던 것이다. 눈을 감으면 지닌일이 더 生生히 눈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이것은 內的 葛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 結 言

吳世才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資料는 거의 없다. 몇 줄 안되는 『高麗史』列傳, 『東國輿地勝覽』高敞의 人物條, 그리고 『東國李相國集』의 李奎報의 記錄들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이런 資料들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高敞人이며 翰林學士 吳學麟의 孫子로 名儒의 家庭에서 태어났다. 그의 두 兄 世功과 世文은 다 顯達하였으나 그 兄들은 오히려 世才의 재주를 칭찬하였고 世才는 그 兄弟들 중에서도 白眉之良으로 評價 받았다.

大興郡人으로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銓叙叙允을 지내고 三掌禮閣하여 名士를 많이 뽑은 바 있는 韓文俊의 門人으로 몸소 六經을 배워서 외운 뿐만 아니라 餘他的 經典에도 通曉한 名儒였다. 그러나 여러 번 科擧에 응시하였으나 번번이 落榜하다가 明宗朝에 겨우 及第는 하였으나 官職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는 平生 동안 許交한 사람이 적었다. 다만 李仁老, 林椿, 趙道, 皇甫抗, 咸淳, 李湛之 등과 結爲友하여 詩酒로 相娛하면서 自稱 七賢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는 知人之鑑을 가져 35歲나 年下인 李奎報를 忘年友로 許交하고 자기를 嵇康, 李奎報를 阮籍에 비했다.

吳世才의 生活에서 形成된 性稟이었던지는 모르나 그는 때로 負氣倨蹇했다고 하기도 하고, 성격이 疏曠少檢하여 세상에 容納되지 못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알았던 李奎報는 이를 변명하여 “젊어서는 소탈

22) 東都亦無有力護者 卒以窮困死。(吳先生德全哀詞並序)

하고 대법하여 검속이 적었으나 만년에 등과하고 부터는 비로소 기를 꺾고 노력을 다하니 순순한 예법의 군자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끝내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여 글을 올려 官職을 스스로 구하기도 하고, 또 李仁老가 세번이나 官界에 천거하였으나 끝내 용납되지 못하여 窮困한 나머지 外祖의 故鄉인 東都로 찾아 갔으나 그 곳에서도 힘써 도와 주는 자 없이 역시 困窮하게 지내다 一生을 마쳤던 것이다.

詩文에 있어서 吳世才는 文은 韓愈의 體를 얻고 詩는 杜甫의 體를 얻었다고 한다. 詩作에서 強韻을 驅使하기보다는 自然스런 詩를 썼던 것 같다. 그래서 그의 詩가 人口에 膾炙됨이 많아 婦女子나 草童牧豎까지도 그의 이름을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온전히 전하는 작품은 五律 二首 《戟巖》과 《病目》뿐이다. 《戟巖》은 戟巖이란 自然形象에 人間의 삶과의 관계에서 그 意味를 부여하고, 詩人の 平和에의 指向을 그 主題로 表出한 作品인데 詩에 能한 北朝使臣이 이 詩를 보고 再三歎美하였다고 한다. 《病目》은 一種의 詩人の 自畫像이다. 生에의 葛藤과 諦念이 한덩어리로 응어리져 있는 作品이다.

위와 같이 살펴본 吳世才의 面貌가 李奎報에게 어떤 모습으로 投影되어 있는가 하는 問題는 앞으로의 課題가 되겠으나 이 글의 末尾에 吳世才를 생각하고 쓴 李奎報의 3篇의 詩와 東都에서 같이 從相했던 弃菴居士安淳之의 詩를 添記하여 이들의 관계를 暗示하고자 한다.

《吳德全東遊不來以詩寄之》

海山東去路悠悠	一落天涯久倦遊
黃稻日肥鷄鷺喜	碧梧秋老鳳凰愁
烟波不返遊吳棹	雪月期浮訪剡舟
聖代未應終見棄	莫思垂白鉤清流

《憶吳德全》

心將萬里長雲遠	淚逐空庭密雨零
一別君來誰與語	眼中無復舊時青

《重憶吳德全》

不見吳季重	于今四五年
欲飛身欠翼	相憶眼成泉

《弃菴居士淳之贈詩》

我本東南一民耳	老慵未可躬耒耜
---------	---------

來依古寺寓閑房	每被人呼作居士
恰似伯通屋廡下	梁鴻德耀暫同止
時從苾芻問經論	敢逐搢紳攻文字
茲邦如魯古多儒	縱或相逢如有忌
乃知所趨苟不同	雖在比鄰遠千里
況於京國文翰苑	絕聽猶如天上事
然曾慣問濮陽公	學海渾渾無涯涘
文如典誥少委蛇	詩似雅頌肯華靡
相如大人尙誕夸	屈平離騷却執轍
淵深洵穆喜自珍	不露虹蜺千丈氣
心祈一見每叩天	未覺己身賤且卑
至誠感神固非虛	忽此相逢非夢裡
我曾夢裡見天人	尙記容顏公即是
敢採拙詩對神句	但恨其時未呈似
如今屢陪樽俎延	又得新篇加溢美
喜將黃色發眉間	即今雖死無所耻
陳篇尙慕古聖賢	何況並生大君子
嗚呼愛之復畏之	佩服德音曷日已